

오순절 후 스물네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4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9 장 “성도여 다 함께” (새 2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6 번 요한복음(jhn) 14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일서 (1 John) 1:1-10	윤홍준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 (1) – 사귄의 관계” (Gathering Together Again - Koinonia)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0:27, 고전 10:3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한글개역 **요일 1:3**)

“We proclaim to you what we have seen and heard, so that you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NIV **1 John 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15 (주일)	11/16 (월)	11/17 (화)	11/18 (수)	11/19 (목)	11/20 (금)	11/21 (토)
	대상5,6	대상7,8	대상9,10	대상11,12	대상13,14	대상15	대상16
본문	히10 암4	히11 암5	히12 암6	히13 암7	약1 암8	약2 암9	약3 읍1
	시149,150	눅1:1-38	눅1:39-80	눅2	눅3	눅4	눅5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1/18 오후7:30)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민32:1-15)
토요 새벽기도회 (11/21 오전6:30)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시15:1-5)

지난 주일(11/8)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 13:17-25)**

오늘 본문(히13:17-25)은 (일명) Concluding Exhortation (결론적 권면)으로 불리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결론적 권면으로 전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다시 집중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할 신앙의 권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결론적인 권면) 1)첫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대하라는 것이고 (히13:17), 2)두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며 (히13:18-19), (마지막) 3)세번째는, 은혜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히13:24-25).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주님께 하듯 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선한 양심과 선한 의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든든한 신앙의 길벗이 되며 동역자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24절과 25절에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했고, 또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책, 월든(Walden)에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자 하나를 내어줄 수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대하는 믿음의 실천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출발이며, 또한 은혜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동행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온통) 거짓과 혐오와 편가르기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중보)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